

成 敗 宣

〈聖心女大 專講〉

目 次

I. 序言	3. 自願奉仕者의 開發
II. 百萬人걷기운동의 展開	4. 메스미디어의 活用
1. 百萬人걷기운동의 性格	5. 百萬人걷기운동의 理念과 方向定立
2. 우리나라의 百萬人걷기운동	IV. 百萬人걷기운동의 評價 및 課題
III. 百萬人 걷기운동과 社會事業	1. 評價
1. 養親會의 百萬人걷기운동 着手	2. 課題
2. 百萬人걷기운동의 組織化	

I. 序 言

1973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百萬人걷기運動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社會一般으로부터 상당한 關心과 理解를 얻고 있으며 社會事業界에서도 成功的인 募金事業으로 그 가치를 認定받고 있다.<sup>1)</sup>

그러나 아직도 소위 社會事業專門 分野안에서 百萬人걷기운동에 대한 올바른 評價는 물론 그 意義와 指向할 바에 대한 合意는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 같다.

或者는 걷기운동을 일컬어 소위 社會行動(SOCIAL ACTION)이라고도 하고 共同募金(UNITED WAY)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募金運動이라고도 하나 그 理論的 基礎는 아직 미약하다.

다만 專門分野의 관심있는 人士들이 걷기운동을 地域社會組織이라는 社會事業의 한 方法論과 결부시키고 있는 정도이다.

本稿는 걷기운동에 관여한 社會事業家들이 實行한 役割과 그로부터 파급된 效果를 살펴봄으로써 걷기운동이 社會事業의 명백한 한 模型으로서의 意義를 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1) 百萬人걷기운동은 77년까지는 百萬人募金걷기운동이라 하다가 78년부터 百萬人걷기운동이라 부르고 있음. 百萬人걷기운동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시민참여도 7위의 募金운동으로 나타나 있고, 54.2%의 시민이 그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社會福祉를 위한 民間實業發展의 可能性에 관한 研究」(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77)에서 밝혀졌음.

## II. 百萬人걷기運動의 展開

### 1. 百萬人걷기운동의 性格

百萬人걷기운동은「MILES FOR MILLIONS」란 英語에서 나온 것으로 文字대로 풀이하면 「百萬人을 위한 行進」, 「多數人을 위한 行進」, 「百萬人을 위한 里程」, 「多數人을 위한 路程」이다. 따라서 이 語義로 부터 우리는 MILES FOR MILLIONS의 수단이 걷기운동만이 아닐 수 있으며 그 성격은 「多數를 위한 多數의 參與」, 더 구체적으로 「市民福祉를 위한 市民의 參與」에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MILES FOR MILLIONS는 걷는 것(walking)으로 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흔히 걷기운동으로 통하고 있다. 걷기운동은 1965년 英國에서 社會奉仕에 뜻이 있던 一團의 靑年들이 스스로가 걷는자(walker)가 되어 그들의 肉體的 試驗의 代價를 財政的 後援者(sponsor)들에게 支拂토록 요청함으로써 시작되었다.<sup>2)</sup>

「걸음으로써」 「募金」을 한 목적은 첫째는 財力은 없지만 社會奉仕에 대한 熱情과 信念을 걷기라는 革新的 手段을 통해 구현하려는 것이었고 둘째는 基金을 開發途上國家들의 社會問題해결을 돕고 있는 民間自願機關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걷기운동은 發祥地인 英國에서 組織的으로 발전한 증거는 눈에 띄지 않으나 그 후 그 「이디어」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1973년에 開發國, 開發途上國등 40여개국에 人氣있고 손쉬운 基金캠페인으로 번져<sup>3)</sup> 名實共に 「百萬人을 위한 行進」으로 자라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百萬人걷기운동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3월 18일 첫 대회를 國際的 家庭福祉기관인 養親會한국지부의 主導하에 가진 이래, 養親會 또는 百萬人걷기운동본부가 주된 組織者가 되어 中央에서 매년 1회씩 3월 또는 4월의 일요일 하루를 택해 걷기운동을 계속해 왔다. 그밖에 地方에서도 中央과 같은 方式으로 산발적인 걷기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方法은 이 운동 主催者가 걷는 자를 개발하고 걷는 자는 자기 後援者를 찾거나 주최측에 후원자 알선을 의뢰하여 걷는 당일 걷기에 나서며(中央의 경우 서울 교외의 20km정도의 코스를 걷기), 걸은 거리만큼 事前에 후원자와 約定된 후원금을 받아 入金시키는 것이다.

中央의 경우만 보면 6년간의 실적은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걷는자 75,720명, 그리고 後援者들에 의한 後援金額 85,917,125원에 이른다. 첫째에 비해 6년이 지난 1978년 현재 걷는자 人口는 7.2배가 늘었고 金額규모는 4배의 증가이다. 즉 1인당 평균모금액은 계속 1千여원 線에 머물고 있는 反面, 참여인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다.

2, 3) 養親會本部의 자료.

<表 1>

우리나라의 걸기운동 実績<sup>4)</sup>

年 度	걸는자의 數 (명)	募金額 (원)	人當平均募金額 (원)
1973	3,487	6,560,780	1,881
1974	4,222	8,712,336	2,064
1975	7,612	9,273,065	1,218
1976	13,216	12,649,265	957
1977	22,183	22,883,185	1,031
1978	25,000	25,838,494	1,034
計	75,720	85,917,125	1,135

### Ⅲ. 걸기운동과 社會事業

걸기운동의 주요 잠재적 參與者들은 걸는자, 後援者, 市民, 民間이요 더 나아가 地域社會, 社會이다. 그러나 만일 社會事業家들이 그들 잠재적 參與者들에게 介入하여 「變化」와 「行動」을 案内하여 그들을 資源으로 活用하지 않았더라면 걸기운동의 成長은 물론 그 存在마저 없었을지 모른다.

따라서 社會事業家들의 參與를 걸기운동의 絕對的 要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社會事業家들은 걸기운동을 통해서 비로소 本格的으로 他分野와의 提携를 이룩하여 걸기운동을 成功시킨 한편 他分野로부터의 支持를 받음으로써 社會事業에 대한 認識을 擴大시킬 수 있었다.

具體적으로 걸기운동에 參與한 社會事業家들의 介入을 살펴보면——.

#### 1. 養親會의 百萬人걸기운동의 着手

우리나라에서의 걸기운동이 養親會韓國支部에 의해 着手되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養親會는 1972년 5월 캐나다의 토론토市에서 있었던 한 걸기운동으로부터 1萬5千달러를 기부받아 同年 12월 城南단지에 託兒所겸 公會堂을 짓고 나서 그 운영자금 對策으로 걸기운동(城南開發걸기운동)을 다음해인 1973년 3월 18일 처음 실시했다.<sup>5)</sup>

걸기운동을 推進함에 있어서 初期의 戰略가운데 중요한 것은 養親會가 中心이 되어 걸기운동을 앞으로 長期化하여 養親會 事業을 위한 財源을 國內 民間人들로부터 募金하되 걸기운동 자체가 「全적으로 外來的 思考」이므로 우선 韓國內 外國人들로부터 支援을 얻어 점차 韓國人 社會에 土着化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4) 百萬人걸기운동본부 제공. 1975년 이후 걸기운동은 서울·京畿 일원에서 뿐 아니라 釜山, 大邱, 仁川, 大田, 春川 등지로 확대되었으나 그 자료는 이 도표에 포함되지 않음.

5) 東亞日報 1972년, 11월 14일, 11월 22일자, 1973년 3월 19일자.

실제로 걷기운동에 참여한 韓國內 外國人의 수는 1회에는 전체의 22%(767명)에서 3년뒤에는 11%(1,500명), 그리고 5회인 1977년에는 4.5%(1,007명)로 걷기운동이 初期이후 점차 韓國人의 손으로 키워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sup>6)</sup>

## 2. 百萬人걷기운동의 組織化

걷기운동의 組織化는 外國人의 支援을 큰 힘으로 업고 있던 1개 社會事業기관 次元의 初期(1,2회)이후 계속 社會事業家들을 中心으로 확대되었다. (表 2참조)

<表 2> 百萬人募金걷기운동 行事 組織者<sup>7)</sup>

年 度	主 催	主 管	後 援
73년	양친회 한국지부 국제 라이온즈 309 지구		동아일보
74년	양친회 한국지부 동아일보사		문교부 보건사회부
75년	양친회 한국지부 한국 정신박약아보호협회	백만인걷기운동 준비위원회	문교부 보건사회부
76년	한국 신체장애아재활협회 한국 주부클럽 연합회 라자로 돕기회 양친회 한국지부	백만인걷기운동 준비위원회	문교부 보건사회부
77년	백만인모금걷기운동본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서울시
78년	한국방송협회	백만인걷기운동본부	

養親會는 4회까지 4년간 걷기운동을 主導하다가 서울 사무소가 폐쇄된 1977년부터는 손을 떼었다.

初期는 물론 養親會가 單獨受惠기관이었다.

그러나 그다음 3,4회에 이르러 養親會는 조심스럽게 同業 他社會福祉단체 및 기관들과 提携를 모색하는 한편 企業등 社會의 他部門과 協力관계를 넓혀나갔다. 그결과 걷기운동이 汎社會的 募金캠페인으로 그 性格을 구축했다.

5회대회부터 實質적으로 대회를 관장하는 「百萬人募金걷기운동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養親會와 無關한 社會事業界의 1元老 金學默박사가 大會長을 맡고 養親會의 프로그램 실장이던 權五得씨가 준비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걷기운동은 養親會의 經驗, 知識 및 技術을 継承하여 社會事業界 전체의 프로그램으로 탐색되었다.

6) 걷기운동본부자료.

7) 걷기운동본부 자료. 77년엔 걷기운동본부에 7개의 회원단체가 가입했고, 78년엔 15개 단체가 가입함.

이어 5,6회 대회는 百萬人걷기운동本部로 大會기구의 명칭도 바뀌고 多數의 指導委員이 위촉되었으며 受惠단체(會員단체)의 수도 77년엔 7개에서, 78년엔 15개로 늘어났으며 聯合募金體 또는 共同募金體로서의 可能性에 近接한 轉換期였다. 社會事業에서 말하는 聯合募金, 共同募金이란 主催측이 따로이 있어서 募金운동에 加入한 社會事業기관들을 대신하여 募金하고 配分하는 것인데 걷기운동본부가 行한 募金과 配分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社會福祉 共同募金會가 설치되어 있어 社會福祉分野를 위한 共同募金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有名無實한 상태에 있다.<sup>8)</sup>

걷기운동은 5,6회대회에서 본격적 共同募金體로 발전할 수 있는 可能性을 충분히 나타냈으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共同募金體로서의 定着을 위한 體制정비와 탈바꿈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걷기운동의 組織化에는 처음부터 行事主體이면서 受惠者인 社會事業기관이외에 一般社會團體, 매스미디어, 그리고 行政府處의 뒷받침이 컸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3. 自願奉仕者의 開發

自願奉仕者란 걷기운동 대회기구의 組織化에 관여, 협조했거나 要員으로 활동한 各界各層의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 따라서 그들의 명단은 대회기구표에 나타나는 바 6회 6년간에 걸친 自願奉仕者는 대략 539명으로 집계되었다. (表 3)

<表 3> 年度別 自願奉仕者의 數와 分野<sup>9)</sup>

	年度別	自願奉仕者의 數와 分野 <sup>9)</sup>	
	數(명)	分 野(%)	
1회(73년)	31	1. 학생	25.8%
		2. 양친회 직원	22.6%
		3. 八軍관계자	16.1%
2회(74년)	37	1. 학생	59.6%
		2. 양친회 직원	24 %
		3. 八軍관계자	16.1%
3회(75년)	57	1. 양친회 직원	15.5%
		2. 財界	12.1%
		3. 의사, 학생, 학교 각자	10.3%
4회(76년)	85	1. 社會團體관련자	22.4%
		2. 財界	15.3%
		3. 학생	10.6%
5회(77년)	145	1. 財界	27 %
		2. 社會團體	24 %

8)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해 71년 共同募金을 위한 社會福祉共同募金會가 法人으로 설립됐으나 寄付金品募集禁止法의 규정대로 당국의 許可를 얻어 寄附者의 自發的 寄附행위에 의해 金品을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과 자체의 조직이 없어 有名無實하다.

9, 10, 11) 걷기운동본부 비치 자료를 분석한 것임.

6회(78년)

183

○. 社會事業家

13.0%

1. 財界

33.3%

2. 言論界

13.7%

3. 社會事業家

12.0%

計

538

그들을 分野別로 보면 1,2회대회에서는 거의 學生, 養親會職員, 美八軍관계자ら 自願奉仕者들이 짜여 있는데 이는 單獨受惠단체인 養親會가 주로 外國人들과 學生들을 活用했기 때문이다.

3,4회대회에서는 受惠단체가 많아짐과 동시에 美八軍, 學生, 養親會측의 참여율은 떨어져고 財界의 참여가 浮上되었을 뿐 아니라 專門職종사자들, 社會단체 관련자등 다양한 分野의 人士들이 自願奉仕者로 활동했다.

이어 5,6회대회에서는 財界의 참여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最多數 참여집단이 되었으며 社會團體, 社會事業家들의 증가가 주목된다. 또한 言論界에서의 參與가 大會이래 最大에 달했다.

걷기운동의 自願奉仕者들을 6년간 통틀어 보면 表 4에서 처럼 단연 財界가 22.8%로 앞

&lt;表 4&gt;

걷기운동 自願奉仕者의 數와 分野<sup>10)</sup>

(1973~1978년 6년간)

分 野	數(명)	百分率(%)
1. 財界	123	22.8
2. 社會團體	74	13.7
3. 學生	53	9.8
4. 社會事業家	52	9.6
5. 言論	44	8.2
6. 養親會	33	6.1
7. 醫士	24	4.5
8. 敎授	22	4.1
9. 敎師	18	3.3
10. 美八軍	16	3.0
11. 其他	80	14.8
計	539	99.9

서며, 社會團體 13.7%, 學生 9.8%, 社會事業家 9.6%, 言論 8.2%, 養親會 6.1%……은 으로 참여수가 나타난다. 이로써 걷기운동은 財界의 物心兩面의 協力이 크게 뒷받침되어 있으며 社會事業家들은 걷기운동을 통해 自願奉仕者들의 開發과 組織化에, 地域社會에 그 影響력을 行使하고 있음이 立證된 셈이다.

#### 4. 매스미디어의 活用<sup>11)</sup>

걸기운동에 있어서 매스미디어는 重要한 資源으로 活用되었다. 이는 매스미디어 自體에서 걸기운동에 대한 關心도 지대했지만 또한 社會事業家들이 直接 또는 自願奉仕者들을 통하여 間接적으로 매스미디어를 적극 活用했기 때문이다.

1,2회대회 및 6회대회에서 매스미디어가 主催 또는 後援기관으로 걸기운동 組織화를 뒷받침했고 言論界人士들의 걸기운동 自願奉仕者數의 順位가 다섯번째로 높은 사실 이외에도 적극적 報道를 통해 一般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맡았다.

國內에서 발간되는 日刊紙(國, 英文), 週刊紙, 각종 단체 또는 기관의 뉴스레터, 雜誌등 인쇄媒體의 경우만 보아도 6년간 報道한 回數는 203회에 이르는데 이는 年 平均 33.8회꼴이며 걸기운동 事前 17.7회 또는 52.2%, 그리고 걸기운동 事後 16.2회 또는 47.8%의 비율이다.

이를 國文과 英文으로 나누어 보면 國文의 미디어가 55.7%이며 나머지 44.3%는 英文과 기타로 쓰여진 것이었다. 國文간행인 경우 日刊紙가 65.4%, 週刊紙가 13.3%로 新聞이 모두 78.7%를 차지했다.

英文미디어의 경우는 뉴스레터 및 外國人단체의 機關紙 또는 機關誌등에 55.6%, 그리고 日刊紙(Korea Herald, Korea Times紙 포함)에 44.4%가 취급되었다.

미디어에서의 취급 추세를 보면 1회 때는 事前 事後 모두 50회가 보도 형식 또는 다른 형식으로 취급됨으로써 처음 시작하는 걸기운동의 出發이 순탄했음을 보여 주는데 이때는 東亞日報에서 後援을 맡았기 때문에 同紙를 중심으로한 報道가 활발했었다. 그러나 2회마저 同社에서 單獨으로 관여하게 되자 他同業紙들의 보도가 疎遠, 2회 대회의 보도는 25회에 머무르다가 3회에 36회, 4회에 54회, 그리고 5회에 22회, 6회에 16회를 기록했다. 미디어의 記事취급 회수가 4회인 76년을 頂點으로 점차 줄어든 것은 걸기운동에 관한 미디어의 관심이 줄어서라기 보다 4년간 대회가 열리면서 미디어의 讀者 및 一般大衆에 걸기운동이 이미 많이 알려졌고 또한 걸기운동에 관한 情報源이 新聞, 雜誌등 뿐이 아니라 보다 넓은 回路에 확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걸기운동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報道이상의 指導的기능뿐 아니라 質的인 면에서 걸기운동의 권위를 높혀준 예도 있다. 즉 事前, 事後 균형있게 걸기운동의 뉴우스를 보도하는 외에 公知, 案內, 宣傳, 參與奮勵, 實務代行 등 自願奉仕的 역할을 했으며, 6회에 걸쳐 10차례의 社說 또는 칼럼등 政策紙面을 할애한 가운데 그 70%를 事前에 다루어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의 관점과 걸기운동을 展開하는 社會事業家들의 관점이 완전히 一致했던 것 만은 아니었다.

미디어는 걸기운동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걸어서 奉仕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慈善, 誠金, 自立自助, 불우이웃돕기등 精神的 측면이 가미된 異色的

다.

일부 미디어에서는 심지어 『이런 식으로 밖에는 募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딱하다』는 同情論을 펴기도 했었다.<sup>12)</sup>

또한 미디어는 걸기운동에 集約된 社會事業의 프로그램, 社會事業家들의 공헌에 대해 극히 一部에서만 言及함으로써 社會事業이 여전히 社會의 少數勢力에 不過하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했다.

## 5. 걸기운동의 理念과 方向의 定立

걸기운동 初期 養親會한국지부 「존·G 앤더슨」지부장은 『한국에서의 걸기운동은 토론토 걸기운동의 계속』이라는 점을 闡明하면서 『한국인들이 나머지 일(城南 탁아소의 운영을 뜻함)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sup>13)</sup>

이와 함께 養親會는 「募金」이라는 直接目的을 單一하지 않게 앞세우는 대신 다음과 같은 5개 항의 名分을 걸기운동의 目的으로 제시하며 市民一般에 接近하는 자세를 보였다.<sup>14)</sup>

첫째, 걷는자의 신체적 단련 및 지구력 시험. 둘째, 발전속도가 늦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여 自助自立정신을 드높인다. 셋째, 城南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설립된 탁아소 및 사회복지관(공회당)사업 기금 조달 및 城南단지 내의 주민복지를 위한 특별사업 기금 조달. 넷째, 걸기운동에 대한 汎國民的인 계몽으로 國民保健에 이바지하여 國力을 배양. 다섯째, 국제적 친선의 도모.

이같이 조심스런 出發끝에 5회대회인 1977년에 비로소 걸기운동의 意味가 새롭게 定義되고 있다. 즉 걸기운동 제 5회 弘報자로에 의하면 걸기운동은 「百萬人」이 상징하는 바 社會의 「큰 部分」을 위한 「多數에 의한」 「行進」으로 『土着化되어 가고 있는 自立, 自發, 自助精神의 總和이며 地域社會 주민들의 生産的이고 組織的인 參與』라는 것이며 『社會福祉에 대한 市民들의 責任의 분담이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社會教育의 方向』이라는 것이다. 걸기운동부족은 걸기운동에 『참여해 주는 市民, 團體 모두가 곧 主催者요, 主管者』라는 立場을 명백히 했다.

또한 걸기운동의 意義와 效果에 대해 多數의 命題들이 제시되었다.

① 걷는자는 땀흘리고 步行을 하고 후원자는 땀을 성원함으로써 불행한 사람들의 문제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훌륭한 募金方法이다.

② 市民 또는 住民들 스스로가 전체 地域社會의 問題解決에 資源으로,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手段으로 動員되고 組織化되고 있다.

12) 中央日報, 1976년 4월 12일자 (분수대)

13) The Toronto Sun紙, 1972년 9월 26일자 「앤더슨」지부장 인터뷰기사

14) 養親會자료.



③ 하나의 目的 밑에 民間各界가 聯合노력을 더 組織的인 社會福祉활동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운동이다.

④ 外援기관에서 상당액 맡아오던 社會福祉財源을 國內人들이 자연스럽게 부담할 기회가 되었다.

⑤ 參與者들이 政府에 대한 依存에서 벗어나 自發的으로 社會福祉에 대한 市民으로서의 責任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⑥ 相扶相助의 미덕이 우리사회에 살아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한다.

⑦ 社會扶助 또는 社會奉仕에 대한 좋은 社會敎育이 되고 있다.

⑧ 혜택을 받은(을) 사람들의 社會復歸나 自活意識을 강하게 고취시킬 것이다.

⑨ 우리사회도 장차는 어려운 나라들의 市民들까지도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⑩ 건전한 오락을 야외에서 즐길 수 있고 신체적 단련에도 적합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한 調査에 의해 5회대회 당일 실제로 評價되었는데<sup>15)</sup> 그결과 54.3%의 參加者들(걷는자)로부터 각항목 모두에 대한 「적극동의」를 얻었으며 또다른 31.5%가 「동의」함으로써 모두 85.8%라는 大多數가 同意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가장 많은 적극동의(71.3%)를 받은 것은 걷기운동이 하나의 훌륭한 募金활동이라는 것, 그 다음이(66.3%) 걷기운동이 民間의 聯合的 社會福祉參與라는 인식이었으며, 가장 적은 적극동의(31.9%)는 걷기운동이 市民 또는 住民의 組織化라는 점이었다.

이로써 걷기운동의 精神的 基底는 확고해진 反面 그 運營에 있어서는 역시 組織化가 最大課題임을 시사한다.

한편 걷기운동 당사자들도 組織化와 관련, 첫째 새로운 接近目標대상을 過去의 參加者(걷는자와 후원자, 개인과 단체)로 잡아 그들을 보다 組織的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둘째 걷는자가 곧 募金委員으로 활약할 만큼 걷기운동에 적극적 態度와 動機를 갖게 하는 방안, 셋째 過去에 걷기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個人 및 企業人들의 참여개발(寄附金 확보등)에 戰略的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는 必要性을 自覺하고 있다.<sup>16)</sup>

## IV. 걷기 운동의 評價 및 課題

### 1 評價

걷기운동은 현단계에서(6회) 一般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으며 意義있고 또한 成功的인 募金운동으로 평가된다.

또 걷기운동을 통해 社會事業과 社會事業家들은 몇가지 業績을 이룩했다.

첫째, 社會福祉 資源의 國內調達試圖를 위해 主體的, 能動的으로 스스로 社會參與를 도모

15) 筆者 자신이 5회 걷기운동의 弘報委員으로 자원봉사하며 調査를 행했음.

16) 걷기운동본부 자료.

둘째, 地域社會의 問題를 地域社會內的 資源으로 해결한다는 原則아래 「變化要員」으로 地域社會에 介入하여 組織者, 指導者, 開拓者, 案內者, 教育者, 調査者, 助力者 등으로 行動했으며,

셋째, 영향력이 큰 매스미디어와 財界의 支持와 協力을 얻어 社會福祉에 대한 市民들의 인식 제고, 責任의식과 自發的인 參與를 이끌어냈고,

넷째, 걸기운동에 관심을 가진 多數의 各계 各층의 自願奉仕者들을 開發, 動員하고 「變化要員」으로 活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섯째, 物量면이나 方法에서 모두 共同募金의 可能性을 實現시켰으며 걸기운동 주관자들이 그 경험을 살려 效率的인 共同募金體를 탄생시켰으면 하는 기대를 모으게 한 점 등이다.<sup>17)</sup>

이러한 業績들은 모두 完成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持續되고 發展되어야 하는 걸기운동의 課題가 되기도 한다.

## 2. 課題

걸기운동은 社會事業의 進路개척에 하나의 열쇠가 되는 커다란 行事이며 앞으로 어떤 형태,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存續되어 社會사업가들이 主導權을 가지고, 共同募金의 課業을 이룩해야 한다는 커다란 課題를 던져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걸기운동은 法的인 體制도 갖추지 못한 任意團體인 걸기운동본부에 의해 行事時에만 잠정적으로 그 基盤력이 발휘되어 그 業務가 獨立的, 長期的, 體系的으로 확장되지 않고 他業務에 종사하는 自願奉仕者에만 의존해왔으므로 철저한 事前計劃과 事後管理가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걸기운동은 實質的인 共同募金體로서, 또는 그러한 機能을 할 수 있기위한 體制 구축(法的, 人的)이 시급하며 아울러 ① 募金운동의 理念的目的의 확립, ② 募金운동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설정, ③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의 합리적인 선택, ④ 募金의 사용처 감독 및 사업효과측정, ⑤ 지속적인 弘報와 社會로부터의 協力을 受容하고 開發할 수 있는 기능의 확립등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體制구축과 관련, 걸기운동은 그 수단으로 쓰고있는 「걸기」단에서 탈피하는 運營의 妙를 살려야 한다. 이에 는 法的, 行政的지원도 있어야 겠지만 社會事業界안에서 먼저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對案으로서 우선 걸기 운동의 명칭을 차제에 一百万人을 위한 行進으로 바꾸어 募金의 目的과 수단에 다양화를 기하고 全國규모로 그 빈도도 대폭 늘리는 方案을 검토할

17) 共同募金의 기구조직등에 관해서는 魚允培박사의 「共同募金運動의 方向과 對策」(河相洛교수 頌 藪論文集, 1975) 참고.

특히, 國際兒童의 해인 1979년에는 兒童들을 위한 一大募金운동으로 걸기운동을 포함하여 「百萬人을 위한 行進」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百萬人걸기운동은 그 명칭이야 어떻든 法的인 體制를 갖추어 안으로도 民間으로부터 社會福祉자원을 動員하는 專門社會事業활동으로 사회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